

『학원』의 해외 추리·과학소설의 수용 및 장르 분화 과정*

최애순**

1. 서론
2. 해외 장편 추리·과학소설 연재
3. 과학탐정소설의 장르 분화 양상
4. 결론

국문요약

『학원』은 1950년대~1960년대 대중문화 현상을 주도했으며, 대중잡지 매체시장의 문을 개척한 시발점의 위치에 놓인다. 『학원』의 대중성 확보는 비단 잡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원사의 발 빠른 전집 간행과 시장개척 전략과 함께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학원』매체는 텍스트로서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텍스트외적인 전략과 함께하는 유동성을 내포한 일종의 ‘매개체’로서 기능한다.

『학원』에 실린 해외 추리소설과 과학소설은 일본을 경유하여 번역된 것이 국내로 들어오던 수용 방식을 벗어나 동시대적인 작품을 신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건전한 아동·청소년상을 만들어야겠다는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6732)

** 계명대 교양교육대학 조교수

교육 이데올로기는 동시대 미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유입하기 시작했다. 『학원』에서 해외 장편 번역물은 지금은 다소 생소한 이름이 있는가 하면, 그 작가의 다른 대표 작품을 제쳐두고 그 시기에 출판된 것을 시차를 두지 않고 바로 게재하고 있다. 이 현상은 일본과 우리에게만 있는 명랑소설 혹은 순정소설과 같은 장르가 아닌 추리소설과 과학소설 장르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국내 독자에게 낯설고 생소했지만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우주생물, 약물실험, 인체실험과 같은 과학소설 분야는 『아리랑』과 『명랑』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반면, 『학원』에서는 해외 번역소설에서부터 비롯하여, 장편 창작소설까지 과학소설 분야를 꾸준히 연재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1965년 『학생과학』잡지라든가, 1970년대 소년소녀 과학소설전집이 나오기 전까지 과학소설의 지면은 『학원』이 거의 유일했다고 볼 수 있다. 『학원』은 1965년 『학생과학』이 탄생하기까지 해외 작품들을 신는 통로였으며, 국내에 과학소설이란 장르를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이음새 역할을 했다. 또한 과학소설이란 장르가 탐정소설과 어떻게 분리되어 나갔으며, 모험탐정, 과학모험, 과학탐정이란 장르의 혼합 양상 속에서 어떻게 추리소설과 과학소설이 나름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갔는지를 보여준다.

『학원』에 연재되었던 추리·과학소설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르소설로 확산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청소년 장르가 갖고 있는 계몽성을 담보로 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장르소설이 오락성과 대중성을 중심으로 하여 일탈하고 싶은 욕망을 담아내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지점에 있었던 『학원』의 청소년 장르소설들은 후에 국내 장르소설의 확산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번역물 위주의 장르소설 시장에서 국내 창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독자에게도 장편 읽을거리를 제공하며 ‘장르작가’를 탄

생시키며, 이질적이고 혼란스러웠던 장르 개념들을 각각의 장르로 분화해 나가는 데 기여했다.

(주제어: 『학원』, 추리소설, 과학소설, 범죄소설, 과학, 첩보, 우주, 서스펜스, 과학탐정, 한낙원, 국가, 장르)

1. 서론

『학원』은 『아리랑』(1955년)과 『명랑』(1956년)보다 앞서서 1952년 11월 대구에서 창간되어 이미 ‘학원세대’라는 대중독자층을 형성했으며, 『학원』의 독자가 『사상계』를 같이 읽었던 만큼 청소년잡지를 넘어서서 시대적 호응을 불러일으킨 대중잡지의 점화불꽃이었다. 『학원』은 창간 당시 ‘중학생 종합 잡지’를 표방했다가 한때 ‘중·고등학생 문예지’로 바뀌었고, 다시 ‘하이틴 잡지’로 변모되었다. 『학원』은 중학생 잡지를 표방했지만, 사실 대중잡지에 훨씬 가까운 만큼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고, 필진들도 뒤이어 창간된 『아리랑』, 『명랑』과 겹친다.¹⁾ 『학원』은 청소년이라는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여 대중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내세우는가 하면, 그 확보한 독자의 폭을 더 넓히기 위해 『학원』에 연재되었던 소설이 끝나기 무섭게 『학원명작선집』과 단행본으로 간행하여 읽을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학원사의 전집시장에서의 발 빠른 판매 전략은 이미 『백과사전』 편찬에서부터 쌓아온 경쟁력이었다. ‘시장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장악한 학원사의 『학원명작선집』은 1950년대 세계문학의 전집 시장 틈

1)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다른 문예지도 없던 시절에 학생 독자뿐만 아니라 성인 독자도 확보하고 있었으며, 필진들도 아동문학가에 국한되지 않고 정비석, 김내성, 윤백남, 김광주, 최정희 등 당대의 쟁쟁한 소설가들이었다(박몽구, 『학생 저널 『학원』과 독서 진흥 운동에 관한 연구』, 『출판잡지저널』 20호, 2012, 65면).

바구니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한국 장편 아동문학전집이었다.²⁾ 『학원』은 단편 위주의 한국문학사에 연재소설인 ‘장편’의 발달을 촉진시키며 ‘장편’을 대중의 읽을거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1950년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는 조흔파의 『알개전』이나 정비석의 『홍길동전』, 김내성의 『황금박쥐』(방송극 〈똥똥이의 모험〉으로 더 유명하다), 『검은별』(〈모여라 꿈동산〉에서 방영되었던 〈검은별〉로 더 알려져 있다) 등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화적 아이콘이라 할 수 있다.

『학원』은 텍스트 내적인 매체로서만이 아니라 텍스트외적인 요소까지 가세해서 청소년 대중독자층을 형성해 나갔다. 학원사에서 간행된 학원명작선집, 소년소녀추리모험선집, 명랑소설선집, 조흔파전집, 최요안전집 등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독서열풍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청소년 대중독자에게 장편 읽을거리를 제공했다.³⁾ “인기를 거듭하고 있는 『학원명작선집』”이라는 광고문구가 『학원』매체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청소년 잡지매체에도 실리면서 『학원』은 전국적으로 대중잡지가 매우 열세였던 1950년대 초기에 창간되어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까지 대중의 읽을거리로서의 구실을 톡톡히 해냈다.

특히, 『학원』에 실린 해외 추리소설과 과학소설은 일본을 경유하여

2) 아동문학사에서 1950년대 전집으로는 『신태양사전집』과 『학원명작선집』이 거의 독보적이다(최애순, 「1960-1970년대 세계아동문학전집과 정전의 논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1호, 2012, 83면 참조).

3) 박몽구, 「학생 저널 『학원』과 독서 진흥 운동에 관한 연구」, 『출판잡지연구』 20호, 2012, 66-69면. 『학원』은 조흔파의 『알개전』을 비롯하여, 김내성의 『쌍무지개 뜨는 언덕』, 정비석의 『홍길동전』 등은 다양한 읽을거리가 없던 시절에 오락거리를 제공하며, 단행본 출간과 후에 전집 붐으로까지 이어져 독서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장편만화가 없었던 때에, 김용환의 『삼국지』와 김성환의 『꺼꾸리군과 장다리군』은 라디오가 전부이던 시절에 TV 영상물에 버금가는 풍부한 오락거리를 독자에게 제공해 주었다.

번역된 것이 국내로 들어오던 수용 방식을 벗어나 동시대적인 작품을 신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건전한 아동·청소년상을 만들어야겠다는 교육 이데올로기는 동시대 미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유입하기 시작했다. 『학원』에서 해외 장편 번역물은 지금은 다소 생소한 이름이 있는가 하면, 같은 작가의 대표 작품은 제쳐두고 그 시기에 출판된 것을 시차를 두지 않고 바로 게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현상은 일본과 우리에게만 있는 명랑소설 혹은 순정소설과 같은 장르가 아닌 추리소설과 과학소설 장르분야에서 두드러진다. 국내 독자에게 낯설고 생소했지만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우주생물, 약물실험, 인체실험과 같은 과학소설 분야는 『아리랑』과 『명랑』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반면, 『학원』에서는 해외 번역소설에서부터 비롯하여, 장편 창작소설까지 과학소설 분야를 꾸준히 연재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1970년대 『학생과학』잡지라든가, 소년소녀 과학소설전집이 나오기 전까지 과학소설의 지면은 『학원』이 거의 유일했다고 볼 수 있다. 『학원』은 1965년 『학생과학』이 탄생하기까지 해외 작품들을 싣는 통로였으며, 국내에 과학소설이란 장르를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이음새 역할을 했다. 또한 과학소설이란 장르가 탐정소설과 어떻게 분리되어 나갔으며, 모험탐정, 과학모험, 과학탐정이란 장르의 혼합 양상 속에서 어떻게 추리소설과 과학소설이 나름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갔는지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실린 해외 번역 추리소설과 과학소설, 그리고 창작물 텍스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⁴⁾ 조흔파를 내세운 명랑소설 정도가

4) 장수경이 박사 논문에서 각 텍스트의 줄거리나 의미를 꼼꼼하게 짚어준 것이 유일하다. 『학원』연구는 대부분 텍스트를 분석한 것이 제외된 채, 『학원』의 위상만을 피상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쳐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았다. 장수경의 『학원』연구는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이 들어 있어, 후속 연구자들의 답답함을 덜어주는 데 큰 힘이 되었

연구되어 있을 뿐이다. 그동안의 『학원』연구는 여러 편이 나왔지만 텍스트를 분석해 놓은 것은 장수경의 글이 거의 유일하고, 다른 논문에서는 본격문학의 입장에서 『학원』의 위상을 텍스트 분석 없이 피상적으로 서술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본 논문은 『학원』에 실린 텍스트에 주목하여, 어떤 내용들이 당대에 수용되고 읽혔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1960년대 『학원』이 해외 추리소설과 과학소설을 번역해 실으면서 장편 읽을거리를 제공하며 혼란스러웠던 소설의 장르를 세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한다.⁵⁾ 특히, 『학원』에 실린 과학소설과 추리소설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에서 과학소설을 어떻게 수용하고 정착시켜 나갔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2. 해외 장편 추리·과학소설 연재

2-1. 동시대 미국 범죄소설의 유입

『학원』에는 쥘 베른과 허버트 조지 웰즈와 같은 과학소설의 고전도, 코난 도일, 모리스 르블랑 같은 추리소설의 고전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고전적인 작품보다 지금은 다소 낯설고 생소한 작가들을 볼 수 있다. 그

다.(『『학원』과 학원세대』, 소명출판, 2013. 참고)

5) 『학원』에 관한 연구 중에 소설 장르의 세분화에 주목한 연구는 장수경의 『『학원』과 학원세대』(소명출판, 2013)가 있다. 또한 박몽구는 잡지 『학원』이 당시 독서 열풍을 불러 온 것에 주목하고, 『학원』에 실렸던 연재소설과 장편 만화의 인기를 예로 들어 주고 있다(박몽구, 『학생 저널 『학원』과 독서 진흥 운동에 관한 연구』, 『출판잡지저널』 20호, 2012).

작가들은 1950년대 미국 펄프 잡지의 범죄소설 작가들로, 『학원』에 실린 것들은 동시기에 번역된 따끈따끈한 작품들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 번역한 것을 그대로 가져오던 것에서 동시대 미국 펄프 잡지에 실린 것들을 다이렉트로 가져왔다는 사실은 놀랍다. 『학원』과 같은 청소년 잡지에서 동시대적인 미국 작품들을 수용했음에도, 전집과 같은 단행본들은 여전히 일본판 중역본들이 대부분이었다. 『학원』은 일본의 중역본이 아닌 동시기 미국의 추리·과학소설이 실려 있어 미국문화의 유입과 함께 당시 국가 이데올로기를 직접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 1970년대 소년소녀과학모험전집들에 실려 있는 작품이 일본의 중역본이라는 점에서 과학소설 혹은 과학을 강조했다는 것 이외에 직접적으로 어떤 것들을 중시했는지를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 『학원』에 실린 해외 번역 장르소설들은 동시기의 작품들이어서, 그런 작품과 장르가 어떻게 수용되었고 읽혔는지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같은 작가의 작품 중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대표작이 아니라 『학원』에서 선택한 작품이 번역되었다는 사실이다. 코난 도일의 작품 중에서 『학원』에 연재된 것은, 추리소설이 아닌 『해저도시 애틀란티스』(1959년 8월~1959년 9월)와 같은 ‘과학모험’소설이다.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은 『학원』에서 부각되지 않는다. 코난 도일 대신 『학원』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추리소설 작가들은 미키 스피레인, 얼 스탠리 가드너, 코넬 율리치 같은 미국 범죄소설 작가들이다. 에로틱하고 선정적인 장면의 부각 때문에, 서머셋 모옴이 ‘추리소설의 쇠퇴’라고 부른 미국의 범죄소설이 1950~1960년대에 적극적으로 유입되었다.⁶⁾

6) 『학원』이 청소년 대상이라 에로틱하고 선정적인 장면 대신, 과학적인 상식이나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부각시켰다면, 『아리랑』, 『명량』에서의 추리소설 경향이 에로틱하고 선정적인 장면으로 흘러갔던 것은, 미국 범죄소설의 영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리랑』잡지의 탐정소설 경향에 관해서는 최애순, 「50년대 『아리랑』잡지의 ‘명

코넬 올리치의 『세인트루이스 블루스』(1963년 9월)는 2009년 황금가지에서 출간된 그의 두 권짜리 단편집 『밤 그리고 어둠』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1963년 『학원』에 실린 것이 국내에 번역된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코넬 올리치는 우리가 『환상의 여인』의 작가로 알고 있는 윌리엄 아이리시이다. 그러나 『학원』에 실려 있는 작품은 지금까지도 국내에 다시 번역된 사례가 없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⁷⁾라는 작품이다. 코넬 올리치 작품은 『학원』에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이외에도 『사형집행인』(1964년 10월), 『장편추리 913호실』(1967년 7월)⁸⁾, 『그림자가 된 사나이』(1967년 9월)⁹⁾ 등 종종 눈에 보인다. 다만, 이 때 번역되어 읽혔던 작품과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윌리엄 아이리시의 작품이 달랐다. 그것은 이 시기 『학원』에 게재된 해외(특히 미국) 작품들은 그 작가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라기보다 동시대 펄프잡지에 게재되었던 것들이기 때

량과 '탐정' 코드, 『현대소설연구』 47호, 2011, 351~390면 참조.

- 7)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뒷골목 허름한 집에 모자가 살았다. 어머니는 맹인. 아들은 어머니의 바람대로 커주지 않고 깡패 집단에 들어가 어머니 속을 썩였다. 아들은 당시 한창 유행하던 세인트 루이스 블루스라는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곤 했다. 어느 날 아들은 친구인지 깡패인지를 데리고 와 자기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다 둘이 무슨 일인가로 말다툼을 하는가 싶더니 쿵하고 사람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사실은 친구가 맹인 어머니의 아들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것이었다. 그런데 살인범 사내는 방문을 열고 나와 세인트 루이스 블루스를 휘파람으로 부르며 유유히 대문 밖으로 사라진다. 맹인 어머니는 쓰러진 이가 못된 친구고 아들은 다치지 않았다고 안심하며 소설이 끝난다. 코넬 올리치의 작품은 이처럼 결말에 여운을 남기거나 하는 등의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폴이식의 추리소설이 아니다. 그러나 읽는 뒤에도 강하게 여운으로 남아서 그의 작품 『환상의 여인』은 엘러리 퀸의 『Y의 비극』, 애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와 함께 세계 3대 추리소설로 꼽힌다.
- 8) 그 시대 추리소설 독자에게 아이리시의 단편으로 가장 기억에 남아 있는 작품인 듯 하다. 『모르그가의 살인』 뒤에 붙어 있었던 『913호실의 비밀』로 번역되었다. 『학원』에는 『913호실』로 번역된 것으로 보아, 여러 편의 추리소설을 묶어놓은 단편집에 또한 한 번 수록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 9) 『밤 그리고 두려움』에 수록된 단편들 중 『하나를 위한 세 건』이란 작품이다. 그림자처럼 쫓는 형사 때문에 '그림자가 된 사나이'로 번역되었을 것이라 유추된다.

문이다.

장르문학에서 일본의 중역본이 판을 치던 1950~1960년대에 미국문학이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흡수된 사례는 이처럼 대중잡지에 실렸던 해외 작품을 통해서 접할 수 있다. 특히, 지금은 낯설고 생소한 미국 동시대 추리소설이 실려 있다. 가령, 1968년 1월 『명탐정 마이크 센』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고, 브렛 할리디로 원작자가 달려 있다.¹⁰⁾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지만 펄프픽션적인 폭력성과 선정성 때문인지 국내에 번역된 사례를 찾아 볼 수가 없고 당연히 알려지지도 않은 작가이다. 1950~1960년대 국내 추리소설의 경향이 에로틱하고 폭력적인 경향으로 흘러가 ‘추리소설의 공백기’로 보이기도 하는 것은, 미국에서 대중문화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던 펄프 잡지의 작가들이나 T.V. 드라마 시리즈들이 대거 유입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인쇄 붐을 야기했던 이언 플레밍의 007 시리즈처럼 이 시기에도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열렬히 애독한 작가였기 때문에 반짝 붐을 일으킨 작가가 있었다. Joseph Smith Fletcher(조셉 스미스 플레처)라는 작가로 역시 마찬가지로 낯설고 생소한 작가이다. 1965년 4월 『학원』에 『어느 날 밤의 사건』이 실려 있다.¹¹⁾ 역시 현재 번역된 사례가 없어 추적하기가 매우 힘든 작가이며, 현재는 영미권에서도 잘 읽히지 않는 작가이다. 1968년 7월에 캐롤린 키인의 『속삭이는 조각』이 실려 있는데, 얼핏 보면 생소하지만 국내 독자에게 명작선집에서 많이 접했던 『비밀

10) 브렛 할리데이로 검색해야 찾을 수 있으며, 하드보일드 퍼즐 미스터리, 스크류볼 코미디, 펄프픽션적인 폭력과 선정성 등으로 미국에서 지명도가 높으며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지만, 이후 국내에서는 번역된 사례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 독자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으며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작가이다.

11) J. S. 프레처라고 되어 있어 찾아도 누군지 잘 알 수가 없다. 플레처라고 해서 검색해 보면 조셉 스미스 플레처로 미국의 추리소설작가로 나온다. 『학원』에 게재된 『어느 날 밤의 사건』은 『미들 템플의 살인』으로 추정된다.

의 계단』작가이다. 낸시 드류 탐정은 1930년 에드워드 스트랫마이어사에서 창조한 소녀 탐정 캐릭터로 수많은 작가들이 캐롤라인 킨이라는 공동 필명으로 써 냈기 때문에, 개개인이 누구인지 추적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낸시 드류는 미국 여성들의 이상적인 모델이며 미국 문화와 함께 변화하며 인기를 누렸다.

이처럼 미국 추리소설이 적극적으로 유입된 반면, 식민지시기 가장 많이 번역되었던 모리스 르블랑¹²⁾의 작품은 단 한 작품도 찾아볼 수 없다. 미국 추리소설 틈에서 간혹 눈에 띄는 것은 영국 추리소설이다. 미국 추리소설은 동시기 작품이 유입되었다면, 영국 추리소설은 우리에게 익숙한 고전적인 작가의 작품이 실려 있다. 추리소설의 고전인 불란서의 모리스 르블랑 작품은 단 한 작품도 없는 반면, 영국의 코난 도일의 작품은 「과학모험 해저도시 애틀란티스」(1959년 8월-9월), 「명작추리 머스그레브가의 의식」(1967년 10월), 「유괴된 중학생」(1968년 2월) 등 간간이 보인다. 다만 국내에서 추리소설가로 알려져 있는 도일의 작품 중 과학소설을 초기에 게재했다는 것이 이채롭다.

그럼으로써 식민지시기 모리스 르블랑과 코난 도일이 차지했던 추리소설의 권위를 유럽(프랑스)이 아니라 '영미권'에 내어 준다. 우리에게 추리소설의 고전이 '영미 추리소설'로 굳어지고 그와 함께 '영문학'이 불문이나 독문보다 선점하게 된 연유는, 미국의 대중문학이 영국의 '고전'에 기대어 갔기 때문이다. 『학원』에 실려 있던 미국 추리소설은 지금 현재 국내에 거의 번역되지 않았거나 번역되었더라도 그 작가의 다른 작품인 경우가 많다. 추리소설에서 미국 펄프잡지의 범죄소설 작가들은 '추리소설의 쇠퇴'라고 불려 질 정도로 선정적이고 폭력적이어서 고전의

12) 모리스 르블랑의 번역 작품에 관해서는 최애순, 「식민지시기부터 1950년대까지 모리스 르블랑 번역의 역사」, 『국어국문학』 156호, 2010, 303-334면 참고.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미 추리소설’이 추리소설의 고전인 것처럼 굳어진 것은, 미국의 범죄소설이 영국의 고전 작품과 함께 번역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영국의 고전과 미국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하드보일드류, 펄프잡지의 결합은 국내에 영문학, 영미권, 영미 추리소설처럼 제국주의 열강인 유럽으로부터 미국이 자리를 선점하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¹³⁾ 식민지시기 유입되었던 불란서의 고전인 에밀 가보리오의 『르루주 사건』이라든가 가스통 르루의 『노랑방의 수수께끼』를 비롯하여 루팡을 창시한 모리스 르블랑의 작품들은, 『학원』에서 마치 처음부터 그런 작품들이 국내에 들어온 적이 있었던가 싶을 만큼 깨끗이 증발해 버린다. 추리소설의 고전국인 불란서(유럽)가 동시대 미국의 번역물들에 밀려나고 있었다.

더불어 고전적인 유형이었던 미스터리 양식 대신에 새로운 유형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온다. 『학원』에 실린 추리소설은 미국의 범죄소설 유형과 또 하나의 새로운 유형인 ‘서스펜스 스릴러’이다.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맞히는 것에서 벗어나 범인이 누구인지를 독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유지되는 긴장감으로 전개시켜 나가는 서스펜스 장르는 히치콕

13) 이 시기 간행된 명작전집에서 항상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의 순으로 배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미국은 고전적인 문학에서 영국과 함께 ‘영문학’으로 국내에서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다. 유럽에 비해 역사가 짧은 미국이 유럽을 제치고 세계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택한 전략은 바로 대중문화의 선점이었다. 1950~1960년대 미국의 추리소설이나 과학소설과 같은 장르문학이 대거 유입된 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과학소설에서는 다른 어떤 유럽 작품보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선점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학소설선집에서 1권의 자리를 미국이 차지하는가 하면, 『학원』에서도 미국의 과학소설이 실리고 있다. 이때 배제된 것은 식민지시기 읽혔던 과학소설의 고전인 쥘 베른(프랑스)과 허버트 조지 웰즈이다. 과학소설의 고전인 허버트 조지 웰즈(영국)의 작품보다 역시 미국 펄프잡지에서 인기를 끌었던 렌즈맨 시리즈의 작가인 에드워드 스미스라든가 짧은 단편으로 유명한 프레드릭 브라운 같은 작가들이다.

영화에 의해 1960년대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¹⁴⁾ 『아리랑』, 『명랑』과 같은 잡지에는 히치콕의 영화소설이 실리고 있으며, 번역물뿐 아니라 창작물에서도 서스펜스 유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¹⁵⁾ 『학원』에서는 지금까지 읽었던 고전적인 양식과 다른 유형을 선보이는 코넬 올리치의 작품을 통해서 고전적인 양식인 범인과 탐정 사이의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미스터리 유형이 아닌 범인을 아는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서스펜스 유형이 전파된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에서 노파는 아들이 살아 있고 죽은 자가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독자는 죽은 자는 아들이고 친구가 범인임을 알고 있다. 노파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를 휘파람으로 부르며 유유히 사라지는 자가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작품이 끝난다. “서스펜스와 스릴이 전편에 넘쳐 흐르는 이 소설은 교수대 위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숨이 막힐 것 같은 긴장감이 돈다”고 코넬 올리치의 『사형집행인』을 소개하는 편집부의 글에서 강조되는 것은 ‘서스펜스와 스릴’이다. 『학원』에서 추리소설이나 과학소설을 간략히 소개

14)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 『이창』의 원작은 코넬 올리치의 『살인이 벌어졌다』이다. 히치콕의 『이창』은 영화소설로 대중잡지에도 실려서 영화로만 소비된 것이 아니라 읽을거리로도 소비되었다. 서스펜스 스릴러는 1960년대 히치콕 영화와 함께 국내에 들어왔으며, 그 때 코넬 올리치의 서스펜스 소설도 새로운 유형으로 심심치 않게 읽혔음을 알 수 있다.

15) 허문영은 1960년대 『아리랑』잡지에서 범인이 누구인지 독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가 범인임이 언제 밝혀질까에 대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서스펜스 스릴러 유형을 새롭게 선보이며 창작하기 시작한다. 허문영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주로 에로틱하고 선정적인 경향으로 흐르던 1950년대 『아리랑』잡지의 추리소설은 1960년대가 되면서 서스펜스 스릴러라는 새로운 유형을 선보이고 있었다. 1960년대 『학원』에서는 아직까지 창작 경향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해외 추리소설에서 서스펜스의 유형이 유입되고 있었다. 이것은 허문영 같은 추리소설 장르작가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학원』에서 추리소설을 쓰는 장수철이나 천세옥은 과학소설도 창작하고 추리소설도 창작한다. 『학원』은 한낙원 같은 과학소설가를 배출한 반면, 전문 추리소설가는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학원』에서 추리소설가로 달리는 김내성은 1950년대 이후 추리소설을 창작하지 않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하는 글에서 ‘서스펜스와 스릴’이라는 단어를 종종 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장르가 이때 유입되었기 때문이다.¹⁶⁾ 1950~1960년대 『학원』에 유입된 서스펜스 스릴러와 범죄소설 유형은 고전적인 추리소설은 아니지만 추리소설의 하위 유형으로 당당히 분류된다. 『학원』은 싸구려 펄프 잡지에 기고되어 추리소설의 쇠퇴라고 혹평을 받기도 했던 미국의 장편 추리소설의 새로운 양식을 적극적으로 들여오고 있었다.

2-2. 과학소설의 과학지식 활용 및 과학교육

과학소설의 고전 H. G. Wells의 작품은 1967년 8월에 『타임머신』이 실려 있다. 『타임머신』은 식민지시기 『80만년후의 사회』로 『별건곤』에 번역되었다. 과학소설의 고전인 웰즈의 작품은 국내에 과학소설이 수용되어 정착되던 1960~1970년대에는 오히려 뒤로 밀려나 있었다. 웰즈의 『우주전쟁』도 『학원』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질 베른의 작품 역시 창간 초창기 무렵인 1954년 4월 『바다 밑 이만리』가 과학소설도 아니고 ‘과학 얘기’로 달려 있는 것을 제외하면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빅뱅이론으로 논란을 야기했던 영국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¹⁷⁾의 『암흑성운의 내습』

16) “공상과학소설 미래전쟁, 광대한 우주에 전개되는 **드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모험 이야기**”(1966.7.); “공상과학소설 바다밑 대전쟁, **드릴과 서스펜스 넘친 SF**”(1966.12.)

17) 영국의 천문학자로 정상우주론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정상우주론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대폭발이론과 함께 우주 생성론의 두 축을 이루며 서로 경쟁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다 1965년 우주배경복사가 밝혀지면서 정상이론은 쇠퇴하고 대폭발이론이 힘을 얻었다. 대폭발이론은 우크라이나 태생의 미국(으로 귀화한) 천문학자 가모프가 대표적이다. 영국과 미국의 천문학자가 서로 다른 이론으로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 미국의 대폭발이론(빅뱅이론)의 승리로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과학소설의 고전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의 수많은 과학소설가 중에서 하필이면 힘을 잃어가고 있는 프레드 호일의 작품을 가져왔다는 점이 흥미롭다. 『학원』에 실린 『암흑성운의 내습』은 『검은 구름(The Black Cloud)』(1957년)이다. 1967년 9월에 게재되었는데,

(1967년 9월)이 실려 있다. 미국의 로버트 하인라인이나 아이작 아시모프의 작품은 보이지 않고 대신 에드워드 엘머 스미스의 렌즈맨 시리즈의 일부인 「은하순찰대」(1966년 10월)나 미국 SF 드라마로 널리 알려진 어윈 알렌의 「원자력 잠수함 시뮬호」(1965년 7월)와 SF 단편 작가로 유명한 프레드릭 브라운¹⁸⁾의 「악마의 선물」(1964년 12월)이 실려 있다. 이 시기 『학원』뿐만 아니라 과학소설전집에서 영국의 아서 클라크의 작품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3대 추리소설 작가인 로버트 하인라인과 아이작 아시모프가 1970년대부터 간행된 과학소설 전집에서 빠짐없이 들어가는 것과는 차별되는 지점이다. 간혹 아서 클라크의 작품을 단행본이 아닌 잡지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학원』에 실려 있는 작품은 「해저목장」(1964년 1월)이다. 추리소설이나 과학소설의 고전이라든가 대표작이 아닌 펄프잡지라든가 텔레비전 드라마 시리즈 같은 것들이 번역된 것을 보면, 장르 자체를 염두에 두었다기보다 미국의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유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학원』에서 해외(미국) 동시대 번역물은 1950년대 후반부터 간간이 들어오다 1960년대 본격적으로 실리게 된다. 동시대 해외 번역물이 실리기 시작하면서 『학원』에서 부각되는 것은 ‘과학’이다. 『학원』에 실린 해외 추리소설이나 과학소설은 『학원』이 ‘청소년 잡지’를 표방하는 만큼, 청소년 대상일 것이라 기대하지만, 읽다 보면 딱히 독자를 상정해 놓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범죄, 폭력이 난무하는 범죄소설 위주의

이 때는 1965년 우주배경복사가 밝혀져서 프레드 호일의 이론이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는 때라 더욱 절묘한 타이밍이라 볼 수 있다.

18) F. 브라운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역시 누구인지 알아내는 데 시간이 걸렸다. 짧은 단편으로 유명한 미국의 추리소설가 프레드릭 브라운은 현재 다시 각광받고 있다. “마지막 원자 전쟁 뒤, 지구는 죽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살지 않았다. 마지막 사람이 방 안에 앉아 있었다. 그때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다.”

번역은 청소년 대상인 경우 검열에 걸릴 법하나 대거 실려 있다. 『학원』에서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 고안한 방법은 바로 과학 지식의 활용이다. 마치 과학 교육을 하는 듯이 상세하게 과학 과목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는 『학원』의 추리소설과 과학소설은 동시대 대중 잡지인 『아리랑』이나 『명랑』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점이다. 당시 과학소설은 정부의 교과과정과 과학 교육의 강조로 오락을 위한 읽을거리를 제공하면서도 청소년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¹⁹⁾ 과학소설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소녀전집의 형태로 간행되고, 아동·청소년 잡지에 주로 게재되었던 것은, 국내 과학소설은 국가의 발전 이데올로기와 함께 ‘교육’을 앞세워서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청소년 잡지와 과학소설이 서로의 목적에 부합하여 잘 맞아 떨어지면서, 『학원』에 실리는 과학소설은 과학에 관한 지식을 중간 중간 배치하고 있으며, 골라 온 작품들도 지식적인 것들이 많다. 독극물과 해독약과 같은 화학이나 생물학, 물리, 우주에 관련된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학원』의 과학소설에는 여러 가지 과학

19) “초등학교 아동으로부터 과학사상을 뿌리” 박기 위해 “과학적인 지식을 주제로 한 과학소설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박영, 『과학소설을 쓰라』, 『동아일보』, 1954. 9.22., 2면). 과학소설을 읽는 청소년 독자들 역시 과학소설에서 과학적인 부분을 읽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처럼 과학적인 부분의 발달이 늦은 후진국에서는 이러한 과학소설들이 하나의 자극제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히며 과학소설에서 비과학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비판적 모습은 과학소설에서 과학적 요소 혹은 ‘과학’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최환, 『비과학적으로 끝난 과학소설』, 『학원』, 1965.8, 15~16면). 이러한 과학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정부의 과학교육 장려로 이어졌는데, 1960년대 ‘과학기술입국’정책(1966년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 강조되면서 과학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산업 개발 기술이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던 시기에도 현대 과학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분명하지 않았음에도 학생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과학으로 모아졌다. 미국의 1960년대 진보주의 교육관으로 인한 과학교육의 강조는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의 과학소설, 과학사상이 대거 유입되었다.

지식과 상식들로 넘쳐난다.

“정부는 그래서 **장래성 있는 청소년**을 키우려는 안을 결정했습니다. 즉, 미국의 장래는 천연자원을 등한시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장래를 창조**하는 일을 **교육개발 위원회와 우수한 청소년**의 손으로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제논성의 우주인』, 『학원』, 1967.7, 86-87면)

『제논성의 우주인』(1967년 7월)의 배경은 미국 교육개발 계획위원회 로스앤젤레스 사무소이다. 과학소설에 ‘교육개발위원회’가 배경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 이후 과학과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다. 1960년대 미국의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3차 교육과정에서 과학과 수학을 강조하고, 과학소설을 통한 과학교육이나 지식을 계몽하고자 하여 과학모험선집이라든가 과학잡지가 여기저기서 생겨난다. 동시대 과학소설이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했던 『학원』의 뒤를 이어 『학생과학』이 탄생한 배경에도 과학소설을 청소년에게 장려하여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고 계몽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1960년대 과학소설의 국내 수용 과정은 과학, 교육, 청소년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하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학원』에 실린 과학소설은 과학의 고전보다 물리, 화학, 생물, 천문학과 같은 과학 관련 교과목에 유용한 ‘과학적 지식’이 포함된 것들이 많다. 과학 분야에서도 식민지시기에는 기계, 기구, 전기, 전자, 토목 등과 관련된 공학이 강세였다면²⁰⁾, 1960~1970년대는 자연과학의 강세가 두드러지

20) 식민지시기 탐정소설에서는 주로 기계, 토목, 건축, 전기 등과 같은 ‘공학’이 강조되어 있다. 김내성의 『백가면』에서의 박사라든가 『마인』에서의 에드벌론과 같은 풍선기구 등은 모두 공학과 관련된 발명품이다.

는 것이 특징이다. 과학소설도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불리는 우주과학 소설이 두드러졌다.

『제논성의 우주인』(1967년 7월)은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우수한 청소년을 기를 목적으로 가정교사 제노씨가 로이의 집을 방문하면서 시작된다. 그날부터 로이의 아들 켄은 제노씨로부터 교육을 받게 된다. 어느 날 로이의 친구 조오가 로이의 집을 방문하여 켄의 노트에 적힌 의문의 원소기호를 보게 된다. 그 노트에는 모든 원소를 125개로 분류하고 있었다. 조오는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가 103개일 텐데 하며 이를 이상히 여기고 로이에게 말한다. 로이는 켄이 거짓말할 리가 없다며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기호가 모두 몇 개인지를 두고 내기한다. 103, 125 둘 중 어느 것이냐는 질문에 켄은 103개라고 답한다. 나머지 22개는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조오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 내기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한다. 이러한 이상한 의문점이 하나둘씩 생기고 결국 『제논성의 우주인』에서는 켄을 가르치던 제노씨가 정부에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 지구를 침략하는 계획을 세우는 우주인이었음이 밝혀진다. 『제논성의 우주인』은 제노라는 우주인이 켄을 이용해 지구침략을 하려는 정체가 밝혀지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과학소설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소기호가 103개인지 125개인지 등의 직접적인 화학지식 이외에도 제노씨가 도어를 열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사라지는 장면에서 ‘분자간 침투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 용어에 대한 설명도 달아주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과학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적인 효과도 내고 있다.

분자간 침투법이란 말 쯤은 알고 있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틈이 있다. 그 틈을 이용하여 하나의 물질이 다른 물질의 사이를 빠져 나가는 것은 이치로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태까지나 꿈 이야기 속의 이치에 불과하다! 그것은 거울 속이라곤 해도 현실로 봤다는 것은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그러한 과학을 몸에 지니고 있는 자는? 로이의 결론은 둘이었다.
‘미래의 인간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혹성에서 온 우주인이다!’
(『제논성의 우주인』, 92면)

『제논성의 우주인』(1967년 7월)은 미국 로스앤젤레스가 배경이어서 번역한 것이 분명하나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고 편집부 편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번역 말미에 TV 시리즈임을 밝히고 있다. 『학원』은 이처럼 동시대 미국 TV 시리즈나 펄프잡지에 실린 과학소설을 번역해서 싣고 있었고, 지금 이들의 원작자를 찾기 힘든 것은 그때 TV 시리즈를 ‘공상 과학소설’로 편집해서 실었기 때문이다. 같은 호에 역시 편집부 편으로 실린 『화성 탐험 SOS』(1967년 7월)도 미국이 유인 화성 로켓을 발진시키는 우주 서스펜스 스토리이다. 얼 스탠리 가드너는 미국 추리소설 작가이다. 그의 추리소설 『절대 0도의 수수께끼』가 『학원』에서 『제로인간』(1967년 10월)으로 번역되어 실려 있다.

“자, 여러분은 **절대영도(絕對零度)**라는 것을 들어 본 일이 있소?”/ “네. 알고 있지요. 학교에서 배운 일이 있어요. 절대온도(絕對溫度)로서 영도(零度)라는 말이지요. 즉 **마이너스 273도**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사건이 그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벨자피르트는 어떤 방에 갇금되어 있었는데, 도망친 흔적도 없이 홀연히 그 몸뚱이가 사라지고 말았소. 보세요. 그의 시계는 멈추어 있고, 만년필은 잉크가 얼어 있고, 의복만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다음에 여기 있던 생쥐입니다. 내 눈 앞에서 직접 작아지더니 앓하는 순간 유명처럼 사라져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쥐가 있던 철창 속, 물병의 물이 얼음이 된 것 아니요! 이것은 절대 영도의 증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추리소설 제로인간』, 1967.10, 307면)

추리소설 『제로인간』은 제목에서부터 과학소설의 냄새를 풍긴다. 절대영도, 마이너스 273도, 껍데기뿐인 의복, 잉크가 얼어 있는 만년필 등

과학적 요소들이 증거들로 널려 있고, 독자에게 과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절대영도란 대체 무엇인가? 절대영도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등 과학적 상식을 알아야만 의문을 풀 수 있다. 제목도 고전적 추리소설의 미스터리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수께끼’라는 단어 대신 ‘제로인간’을 내세움으로써 과학소설에서 보았던 ‘인조인간’ 등과 겹쳐지도록 유도한다. 『학원』의 청소년 독자는 『제로인간』에서 얼 스탠리 가드너라는 추리소설 작가와 그의 작품을 읽는 것보다 물리에서 실제로 절대영도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하는 과학적 지식을 읽어 낸다. 이처럼 『학원』의 과학소설은 물리에서부터 화학, 생물,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과학 교육의 수단으로서 당시 신문이나 뉴스에서 접할 만한 과학적 지식이나 상식이 곳곳에 들어 있다. 가령, 『지구 SOS』(1968년 1월)에는 리보핵산(RNA)²¹⁾이 나온다. 리보핵산을 파괴하는 X선과 복사열을 발명해내어 그 무서운 빛과 열이 빈센트의 뇌에 조사되고 있다. 뇌의 기억작용을 정지시키고 기억된 일까지 잊게 하는 것. 지금은 DNA로 유전자 조작을 한다거나 하는 기사를 자주 접하여 리보핵산이 오히려 낯설고 생소하다. 그러나 리보핵산은 당시에 폐렴균에서 발견하여 1960년대 생명과학이 적극적으로 사용되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 페니실린, 각종 비타민에 이르기까지 약 광고가 끼어 있으며, 과학소설에 이 약품명이나 항생제가 투여되어 있다는 사실은, 과학소설이 새로 발견한 약품이나 과학소식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과학소설은 바로 당시의 새로 투입된 첨단과학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소설은 터무니없는 상상이 아니라 당시에 발견된 과

21) RNA. 1944년 미국의 마벨리가 폐렴균을 이용하여 발견. 생명과학 분야는 1930년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대두되기 시작하여 1960년대에 이르러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두산백과』)

학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그때그때 벌어진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집어넣거나, 우주개발에서도 실제 쏘아 올린 우주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등 ‘현실성’ 혹은 실현가능성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과학소설의 비과학적인 요소나 터무니없는 부분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²²⁾

2-3. 첩보소설의 발달과 첩보원의 탄생

『학원』에는 우주서스펜스 스토리라고 하여 우주를 배경으로 한 과학소설이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종종 실려 있다. 그런데, 우주에 로켓을 발사하거나 우주에서 낯선 이방인이 침입하거나 하는 설정에서 첨단과학은 국가안보, 즉 국방부, 군대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주가 개척해야 할 땅이라는 사고와 함께 우주인이 공포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적이라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 적으로서의 우주인은 공산당 스파이와 동일시된다. 적이 공산당으로 설정되면 과학소설은 첩보소설의 양식을 띠게 된다.

지금 우주 로켓 M1호는 암흑의 우주 공간을 지나, 신비에 싸인 붉은 모래로 덮인 혹성(惑星)에 도달했다. 화성이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것은 형태도 없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지의 적**이었다. 이 공포의 기록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화성 탐험 SOS』, 1967.7, 72면)

『화성 탐험 SOS』에서 우주로 나간 로켓이 통신하는 곳은 ‘지구사령부’

22) 청소년 독자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과학소설이 ‘과학적인 요소’를 담을 것을 요구하며, 비과학적인 요소를 지적하기도 한다.(최환, 『비과학적으로 끝난 과학소설』, 『학원』, 1965.8, 15~16면)

이다. 1960년대 미국의 지구 사령부는 알래스카에 위치해 있었다.²³⁾ 알래스카는 S.M. 테네쇼우의 첩보소설 『아이스맨』(1967년 10월)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과학소설에서 종종 등장하는 국방부 장관(『우주별레 오메가호』), (미)국무차관(『화성 탐험 SOS』), IATS(정부정보기관), 국방부, 지구 사령부, 중앙관상대(비행접시 발견 등 천문학) 등은 ‘국가’의 안위와 관계되어 있다. 1960~1970년대의 과학은 국가(국방)와 떼어 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냉전시대의 ‘과학이 적과 싸울 수 있는 무기, 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쟁’ 이후의 과학이 늘 전쟁을 품고 발달해 왔다는 아이러니는 과학이 진보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공포와 경쟁 속에서 나와 적, 우량과 불량, 우수와 불량이라는 이분법적 틀로 인류를 압박해 왔다는 이면을 드러내 주어서 씁쓸하다.

과학소설과 추리소설이 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또 하나의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첩보소설이다. 첩보소설은 첩보원이 등장하는 소설로 이차대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장르이다. 식민지시기 『태풍』과 같은 탐정소설도 일종의 첩보소설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첩보소설은 장르가 유입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가 처한 상황이 적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그 시기를 틈타 급격히 발달하는 장르이다. 식민지 상황에 처했을 때, 탐정소설의 양식이 본격 추리의 형식이 아니라 모험스파이 양식이 발달한 것이라든가, 전쟁이 끝나고

23) 미국의 지구사령부는 태평양 사령부의 명령 체계 하의 알래스카 사령부가 1947년 1월 1일에서 1975년 6월 30일, 1989년 7월 7일부터 현재까지 통합전투사령부로 이어지고 있다. 『화성 탐험 SOS』가 게재된 때는 알래스카 사령부를 지칭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S.M. 테네쇼우의 아이스맨에게 납치되어 첩보부원이 탄생하게 되는 첩보소설의 배경을 ‘알래스카’로 설정한 것 역시 미국 지구 사령부의 위치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공주의로 남북이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범인을 주로 공산당으로 설정하는 것 등이 모두 첩보소설의 사례이다.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에서 첩보소설이 발달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학원』에 첩보원이 등장하는 첩보소설이 많이 실린 것도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동시대 미국 작품을 주로 번역했기 때문에, 파악해야 할 적이 공산당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냉전시대의 미·소의 대립은 우리의 상황과 맞물려서 국내에서 미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데 일조했다. 미소간의 냉전시대의 우주전쟁에서 미국과 같은 입장에 처한 우리에게 소련은 적이었으며, 과학소설 역시 소련을 위시한 공산국의 작품은 번역되지 않았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차페크의 작품은 식민지시기에는 오히려 번역되었으나,²⁴⁾ 1950~1960년대 국내에 번역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미국의 과학소설이 대거 번역되었으며, 이런 미국 과학소설의 영향은 한낙원의 작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²⁵⁾

미키 스피레인은 1950년대에 국내에 번역된 미국 펄프지 추리소설 작가이다. 『심판은 내가 한다』, 『내 권총은 빠르다』 등으로 국내에 소개된 미키 스피레인²⁶⁾의 작품 중에서, 『학원』에 실려 있는 작품은 그가

24) 카렐 차페크, 『인조노동자』, 박영희 역, 『개벽』, 1925.2. (김종방, 『1920년대 과학소설의 국내 수용과정 연구—「80만년 후의 사회」와 「인조노동자」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4호, 2011, 117~146면 참고)

25) 한낙원의 『금성탐험대』에서 미국과 소련의 금성탐험대가 금성에 착륙하였을 때, 그들은 금성인으로 보였으나 사실은 알파성인이었던 이들에게 감금당한 적이 있다. 그때 케로라라는 인조인간이 그들을 감시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로봇의 법칙에 대해 물어보고 ‘로봇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어기고 공격하자 고장났다며 부숴 버린다. 로봇의 삼원칙은 아이작 아시모프(로버트 하인라인, 아서 클라크와 함께 3대 과학소설가로 꼽힌다)의 과학소설에서 유래되어 그 뒤로 국내 창작물에서 로봇이 등장할 때마다 인용되곤 했다.

26) 현재 국내에 『심판은 내가 한다』와 『내 권총은 빠르다』는 번역되었다. 그러나 미키

1950년대 후반에 다시 작품을 쓰면서 등장시킨 ‘타이거 맨’ 시리즈이다. 『학원』에서 미키 스피레인은 범죄소설가라기보다 ‘타이거 맨’을 탄생시킨 첩보소설가이다. 『학원』에 실린 미키 스피레인의 작품은 「민간 정보 부원」(1967년 9월)과 「정보부장의 비밀명령」(1967년 10월)의 타이거 맨이 등장하는 첩보소설이다. 「민간 정보 부원」과 「정보부장의 비밀 명령」의 작품을 소개하며 시작하는 부분은 생사를 넘나들고 국가가 엄청난 위기에 빠진 상황으로 설정되어 첩보원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제 1부 핵무기의 위기—미국의 핵 미사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발사되려고 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와 피로 싸우는 ‘타이거·맨’ 스토오리
(「민간 정보 부원」 소개글, 383면)

「정보부장의 비밀명령」—명령에는 절대 복종해야 한다. 명령이란 대개의 경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음모에 대하여 죽느냐? 사느냐?의 투쟁을 전개하라는 것이다.
(「정보부장의 비밀명령」 소개 글, 271면)

‘타이거 맨’은 정부의 정보기관인 IATS의 뉴우욕 지부와 그들의 민간 정보조직의 수령 ‘마틴·그레디’에게 사건을 알리는 전화를 걸었다./ IATS의 간부 칼·랜돌프와 그레디이는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²⁷⁾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D-스위치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해진다. 타이거·맨이 죽인 비트·실비는 발견하면 죽이라는 명령이 내릴 만큼 IATS가 눈의 가시로 여기던 숙적(宿敵)인 간첩이었다.

“타이거, 재미 있는 것을 만들었어. 바르틱 계획을 위하여 미국에 잠입하였다는 스파이드·히로우의 사진이야. 나치스의 극비 문서 속에 있는 사진을 망원경으로 찍은 것인데, 5센티 평방의 사진을 내가 정확한 기술로서 23센티 평방으로 만든 거야.”
(「정보부장의 비밀명령」, 288면)

스피레인의 작품 중에서 『학원』에 실려 있던 ‘타이거 맨’ 시리즈는 다시 번역되지 않아 국내 독자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처럼 『학원』에 실려 있던 작품과 현재 국내 독자가 알고 있는 작품은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학원』이 반영하는 그 시기의 이데올로기이며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27) 러시아와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발사되면 지구가 멸망할 정도로 강력하다.

“계획의 전부입니다. 놈들은 와싱턴에 있는 정보국 빌딩을 전부 소형 원자 폭탄으로 날려 버리고 여태까지 우리 손에 들어왔던 비밀문서를 없애 버릴려는 것입니다.” (『정보부장의 비밀명령』, 289면)

‘타이거 맨’은 정부의 정보 부원이 아니라 ‘민간 정보 부원’으로, 정부 정보 기관의 보스와 목적은 같지만 공로 때문에 저지를 당하기도 하면서 공산당 스파이와 싸우는 사나이이다. 스파이드 히로우는 공산측 스파이로 타이거 맨의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는 적의 스파이이다. 비트 설비 역시 공산측 스파이이다. 이때의 공산측 스파이(적)은 나치스 혹은 소련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이미지를 굳히며, 미국의 위협이나 위협은 곧 전 세계의 위협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미키 스피레인의 『정보부장의 비밀 명령』이라든가 『민간 정보 부원』같은 『학원』의 첩보소설은 청소년에게 공산당과 맞서 싸우는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굳히며,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학원』에서 미키 스피레인의 첩보소설을 가져온 것은, 그것이 국내의 반공주의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이런 첩보소설은 우리에게 공포대상으로 각인된 ‘핵 미사일’이라든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소형 원자 폭탄’ 같은 위력이 엄청나서 단박에 전 국가의 위기 상황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는 무기들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여 반공주의 사상을 최대로 끌어 올린다.

『달 로케트의 수수께끼』(1968년 1월)에서 베트남전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하이드는 과학소설에서 우주인이 뇌에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칩을 심어 놓은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결국 우주인이 달 로케트를 조종할 것이라는 국가의 위협을 근거로 하이드는 달 로케트와 함께 공중에서 폭발되어 제거된다. 베트남전²⁸⁾ 이후로 정신적인 이상증후가 나타나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그들의

정신이상을 치유하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존립을 위해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보다는 개인을 중시했던 미국의 사상에 한 개인을 쉽게 저버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평화수호국의 이미지와 상반되기 때문에, 과학소설에서 모티프로 삼은 방법은 우주인이 뇌에 이상한 칩을 심어 놓아 하이드가 국가에 해가 되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설정이다. 그럼으로써 독자는 하이드라는 인물을 희생시키는 것을 마치 국방을 위협하는 스파이 존재를 차단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학원』에는 이것 이외에도 ‘첩보원’의 활동을 그린 소설이 눈에 자주 띈다. 테네소우의 『아이스맨』(1967년 10월)을 비롯하여, 『복병의 부대』(1966년 6월) 등에서 ‘첩보원’의 탄생이나 활동 장면이 그려져 있다. 『아이스맨』은 스코트와 콜비가 아이스맨들이 살고 있다는 거대한 건물을 발견하고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알래스카로 갔다가 엔진고장으로 착륙한 뒤 아이스맨의 포로가 되는 이야기이다. 지라별의 포로가 되어 아이스맨들을 지배하는 거대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첩보원으로 탄생하게 되는 『아이스맨』은 이후 국내에 번역된 사례가 없다. 『아이스맨』의 제 1장의 소제목은 〈첩보원의 탄생〉이고, 배경은 미국의 정보부가 위치한 알래스카이다. 『학원』의 과학소설이나 첩보소설 배경은 뉴욕, 로스앤젤레스, 워싱턴(정보국)(『정보부장의 비밀명령』) 등 미국의 여러 곳이다.

28) 베트남전은 『학원』의 과학소설에서 전면적으로 작품의 배경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1965년 3월에 『베트남 군사원조단 파견』이라는 기사가 간단히 실린 이후 창작 작품의 배경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장수철의 『비밀극장을 뒤져라』(1967년 연재)에서 독약제조사와 해독약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를 타이베이(탈베이) 태생으로 설정해 놓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악마의 화학〉이라는 소제목이 달릴 정도로 화학무기, 독가스, 독약에 대한 끔찍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음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것은 독약의 진원지를 타이베이 태생으로 설정해 놓음으로써 화학전이었던 베트남전에서 비롯된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멕시코에 홀로 잠입한 정보부원 마트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서운 비밀 무기였다.”라고 『복병의 부대』를 간단히 압축해 놓은 것에서 첩보원은 주로 정보기밀을 빼내오기 위해 비밀무기와 싸우고 투쟁하는 임무를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레슬리 채터리스의 『살아있는 시체』가 1969년 6월부터 8월까지 3회에 걸쳐 연재된다. 레슬리 채터리스는 해문에서 아동용으로 나온 『암흑가의 성자』가 국내 유일의 번역일 정도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 당시 세인트라는 첩보원을 등장시킨 시리즈로 잘 알려진 작가였다. 이처럼 청소년 대상의 『학원』에 ‘첩보소설’이나 ‘첩보원’의 활동을 그린 내용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것은 『아리랑』이나 『명량』과 같은 성인 대상의 대중잡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학원』이 청소년 잡지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폭력적이라거나 선정적인 장면이 들어간 것은 배제했을 것 같지만, 당시 검열 체제가 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드보일드류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은 문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고전적인 양식보다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들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미국의 범죄소설²⁹⁾과 첩보소설이 청소년잡지를 표방하는 『학원』에서 주로 번역되었다. 『학원』에 실린 추리소설이나 첩보소설에서 배제된 것은, 성인 대상과의 구별을 위한 에로틱하고 선정적인 장면의 노출이다.³⁰⁾ 1950~1960년대 미국의 범죄

29) 미키 스피레인은 당시 미국에서 엄청난 판매부수를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작가였다(에르네스트 만텔, 이동연 옮김, 『즐거운 살인—범죄소설의 사회사』, 이후, 2001, 168-172면 참조).

30) 상대적으로 『아리랑』, 『명량』에 실린 추리소설이 에로틱하고 선정적인 내용들로 채워진 것에 비해, 『학원』에서는 첩보물과 과학지식을 활용한 추리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아리랑, 명량의 범죄실화 이야기라든가 하는 데서도 전혀 찾을 수 없는 작가가 쓴 것들의 번역이 들어 있는데, 이런 작가들도 당시 미국 펄프지의 작가였을 가능성이 크다.

소설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추리소설의 미스터리 유형이 고전적인 양식으로 굳어졌던 국내에서 결국 미국의 범죄소설은 새로운 한 양식을 차지할 수 있었다.³¹⁾ 추리소설 장르의 이론이나 정의 혹은 역사에서 미국의 하드보일드 유형의 범죄소설이 한 양식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동시대적’으로 번역되고 게재되었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펄프 잡지나 싸구려 잡지에 게재되었던 작가들이 추리소설의 한 양식으로 굳어지면서 지명도를 굳힌 것은, 미국문화의 적극적인 유입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한 양식으로 미국은 ‘첩보소설’로 냉전시대의 긴장을 유지하며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면서 세계평화와 인류구원의 강력한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상황과 국내의 반공주의와 맞물려서 국내의 과학소설은 적과 아군으로 나뉘어져 ‘첩보소설’의 양상을 띠기도 했다. 과학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가 우리 편인가’를 파악하는 것이었으며, 과학은 국가(군대)의 것이고, 곧 전쟁에서의 무기였다.

3. 과학탐정소설의 장르 분화 양상

3-1. 모험탐정소설에서 추리·과학소설의 장르 분화 과정

국내에서 다른 장르는 이미 식민지시기에 유입되어 창작물이 나온 반면, 과학소설 장르는 식민지시기에 허버트 조지 웰즈의 작품과 쥘 베른의 작품이 번역되어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물은 거의 전무했다.

31) 서머셋 모옴은 이 시기를 추리소설의 쇠퇴기라 부른다. 그러나 추리소설의 이론이나 역사에서는 미국의 범죄소설은 추리소설의 새로운 역사로 자리잡아 있다.

그만큼 과학소설이 국내의 토착정서에는 낯설고 이질적인 장르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과학소설의 창작은 전쟁 이후인 1950년대 후반에서야 시도된다. 그것도 성인 대상이 아닌 어린이·청소년을 독자층으로 형성하는 아동문학으로부터 비롯된다. 『학원』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과학이야기나 과학소설은 『아리랑』, 『명랑』과 같은 성인 대상의 대중잡지에서는 탐정소설 명랑소설과 같은 장르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다.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가끔 실리는 것도 주로 ‘죽지 않는 몸’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흡혈귀에 얽힌 기담 형식으로 전개된다. 그래서 ‘과학소설’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환상적이고 믿을 수 없는 신비한 이야기, 기담으로 인식되기도 했다.³²⁾ 국내에서 과학소설이 어린이 청소년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여 유입된 것은, 과학소설의 여러 하위 갈래 중에서 익숙한 유형인 모험 혹은 탐정소설이 식민지시기에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식민지시기 「과학소설 천공의 용소년」 혹은 「화성소설 천공의 용소년」이라 달리던 SF는 해방 이후 모험, 탐험, 탐정, 과학모험, 과학탐험, 탐정모험, 과학탐정 등으로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다가 차차 장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김내성의 『태풍』에서의 납치극, 각국의 박사들이 기계도안을 놓고 벌이는 두뇌싸움, 『백가면』과 같은 탐정소설에서의 전쟁에서 적국을 쓰러뜨릴 비밀병기로서의 비밀설계도를 둘러싼 암투가 한국 과학소설의 시작이라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 이후가 되면, 과학소설은 본격적으로 아동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된다. 과학모험전집이라고 부르게 된 데는 한국에서 SF의 발달은 모험소설에서부터 시작되었

32) 송효정은 1960년대 한국 SF영화의 특성을 ‘고딕’으로 규정한다. SF영화뿐만 아니라 과학소설도 당시 독자에게 괴기, 기담으로 받아들여졌다(송효정, 『실험실의 미친 과학자와 제국주의적 향수—1960년대 한국 고딕 SF 영화 연구』, 『대중서사연구』 33호, 2014, 271~308면 참조).

기 때문이다. 탐정모험, 추리모험선집, 과학모험선집과 같이 묶이는 것도 그런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학원』에서도 처음에는 「과학소설 백만년 여행」, 과학애기 「바다 밑 이만리」(1953~1954)등 번역물이 주로 실렸다. 식민지시기 『별건곤』에 「80만년후의 사회」로 번역되었던 웰즈의 『타임머신』은 『학원』에 〈80만년 후의 사회〉를 한 장의 제목으로 하여 실리기도 한다. 「제논성의 우주인」이라든가 「암흑성운의 내습」 등 과학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장르명을 어떻게 달아야 할지 혼동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소설의 구도가 모험소설 혹은 탐정소설, 모험스파이 양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학원』에 실린 과학소설의 장르명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과학탐정’과 같이 다른 장르와 혼합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추리, 모험, 탐정, 과학 등으로 세분화되어 나가면서 SF라는 장르가 발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령, 오소백의 「第二의 地球」는 과학탐정이라고 달려 있고, 장수철의 「잃어버린 지하왕국」(부르스 카터)은 연재탐정이라 달리다가 과학탐정으로 중간에 바뀌었다가 뒤로 갈수록 과학소설 「잃어버린 지하왕국」으로 용어가 정착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학원』의 장르명의 변모 양상은 SF에 대한 번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나름의 고민흔적들로 보인다. 『학원』에서 과학소설은 1950년대까지도 낯설고 생소한 장르였다. 주로 우리에게 익숙한 장르와 혼합하여 ‘과학탐정’, ‘과학모험’과 같은 양식으로 들어오게 된다. 쥘 베른의 「바다 밑 이만리」가 과학소설이 아니라 ‘과학애기’로 달리는가 하면, 1957년 10월호에 ‘七大 걸작모험 탐정애기’로 묶어서 ‘모험탐정’의 양식으로 코난 도일의 「아홉시의 사건」이 번역될 때, 「모히칸 족의 최후」와 같은 서부활극 혹은 서부모험의 모험소설 장르와 함께 묶인다. 이처럼 국내에서 탐정소설이나 과학소설이

유입될 때 아동문학에서 익숙한 장르였던 모험소설에 기대어서 번역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학원』의 청소년 과학소설은 ‘모험소설’의 구도에서 ‘보물지도’가 ‘비밀설계도’로 바뀌었을 정도로 장르가 바뀌어도 설정이 흡사하다. 한낙원의 과학소설 『잃어버린 소년』이나 『금성탐험대』, 『우주벌레 오메가호』에서 방정환의 『칠칠단의 비밀』과 김내성의 『백가면』과 『태풍』이 겹쳐지는 것은 바로 그런 연유에서이다. 한낙원의 과학소설 『잃어버린 소년』은 마치 소파 방정환의 탐정소설 『칠칠단의 비밀』을 보는 것 같다. 첫 장의 소재목도 <괴상한 편지>이다.³³⁾ 연재과학소설 『우주벌레 오메가호』(『학원』, 1967.6~1969.2)에서는 두 번째 장의 소재목이 <사라진 환자>(제 4회)이고, 『금성탐험대』의 첫 장의 소재목은 <뜻밖의 사건들>이다. 괴상한 편지가 날아오거나 누군가가 사라지거나 혹은 죽거나 하는 미스터리로부터 시작하는 과학소설은 분명 탐정소설의 설정이다. 『잃어버린 소년』의 중요 서류와 비밀 설계도, 외파로 떨어진 한라산에 자리한 우주과학 연구소, 그리고 등장인물인 원박사와 나기사 등의 설정은 김내성의 『태풍』³⁴⁾이라든가 노랑방의 수수께끼를 번역한 최서해의 『사랑의 원수』와도 똑같다. 그러나 『학원』과학소설은 ‘오메가호’라든가, ‘금성’ 혹은 ‘화성’, 그도 아니면 원소 기호 같은 과학 용어들을 적극적으로 끌

33) 방정환 『소년사천왕』의 첫 장의 소재목도 ‘이상한 편지’로 시작한다.

34) 김내성의 『태풍』은 삼국 간의 비밀 설계도와 박사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다. 암호박사 마하오 청년, 맹렬히 전개되는 각국간의 스파이전, 파괴광선을 둘러싸고 전개된 베르만 박사, 강영제박사, 행방불명된 중국의 왕유호 박사..... 불란서와 영국이 독일에 대하여 무력전의 승산이 없자 스파이전. 베르만 박사가 연구중인 파괴광선은 살인광선의 몇 배의 위력을 가진 무서운 광선이다. 살인광선은 사람을 파괴하는 데만 쓰이지만 이 파괴광선은 온갖 시설, 온갖 무기를 엿같이 녹여버리는 무서운 발열광선이다. 살인광선은 김내성의 단편 『비밀의 문』에서 강영제 박사가 발명한 것이다. 『태풍』은 마치 그것의 후속작품이라도 되듯이, 살인광선보다 업그레이드된 발열광선의 설계도를 놓고 삼국이 각축을 벌이는 내용이다.

어들이면서 지문, 흔적, 증거 등의 탐정소설(혹은 추리소설)과 차별화되기 시작한다. 1950년대 『학원』의 과학소설이 유독 원자, 에네르기, 제논 원소기호(『제논성의 우주인』), 성운(『암흑성운의 내습』) 등의 과학용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과학소설이라는 장르를 나름대로 수용하고자 한 노력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장수철의 『비밀극장을 뒤져라』(1967년 연재)는 장편 창작 추리소설이다. 범인 살무사를 잡는 형식의 추리소설 구조를 택하고 있지만, 담겨 있는 내용은 화학 분야의 과학적 지식이 핵심이다. 독약과 해독약에 얽힌 수수께끼 풀기보다 독약의 성분과 증상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장수철의 『비밀 극장을 뒤져라』는 『학원』의 추리소설이 고전적인 미스터리 구조를 벗어남으로써, 미스터리 자체보다 과학소설적 요소를 통해 청소년의 흥미를 끌어 들이고 있다. 한낙원의 과학소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장수철의 『비밀극장을 뒤져라』는 비단 청소년을 독자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그 부분을 메워 주는 것이 바로 ‘과학적 지식’이라 볼 수 있다. 추리소설에서 과학적 요소의 차용은 국내에 과학소설이 막 들어오던 1960년대에 과학교육의 강조로 인해 ‘과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해졌기 때문이다. 한낙원 이외의 특별한 과학소설 장르작가가 없었던 국내에서 같은 작가가 추리소설과 과학소설을 함께 번역하기도 하고 창작하기도 했다. 이렇게 추리소설과 과학소설은 국내에 들어올 때는 각각이 분화되어 따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치 식민지시기의 ‘탐정소설’처럼 유사한 장르로 들어와 분화되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학원』에 추리소설 『비밀극장을 뒤져라』를 연재한 장수철은 같은 지면에 브루스 카터의 과학소설 『잃어버린 지하왕국』(1958년 연재)을 번역하기도 했다.

『학원』에서 ‘과학소설’이라는 장르를 개척하고 창작한 한낙원의 『금

성탐험대』는 금성탐험대로 선발된 한국인 청년 고진이 납치되는 사건으로 시작한다. 『우주 별레 오메가호』는 백운대에서 겪은 믿지 못할 수상한 이야기에 대한 의구심으로 시작한다. 국내에서 과학소설은 탐정소설의 양식에 기대어서 독자의 호기심을 끌어올리며 시작하는 방법을 차용한다.

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백운대에서 돌아 왔는지, 그것을 말하기 전에 지난 몇 주일 동안 한국을 뒤덮은 심상찮은 뜬 소문을 이야기해 두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백운대에서 생긴 일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의 나로서는 알 바 없지만 어쨌든 이야기가 초자연적인 것뿐이니만치 나로서는 수상한 이야기는 수상한 이야기들 끼리 모아 보고 싶은 것이다./ (……)

(『우주별레 오메가호』³⁵⁾2회, 218면)

초자연적인 이야기에 대한 의구심으로 가득 찼던 초반부를 ‘과학’으로 메워야 하는 것이 과학소설이라면,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탐정’의 이성으로 풀어내는 추리소설과 다를 바가 없다. 국내에서 추리소설과 과학소설은 ‘과학탐정’이란 장르로 혼합되어 들어와서 추리소설 공모전에 과학소설이 당선되기도 하고, 『학원』에서도 추리, 과학, 과학탐정, 공상과학 등으로 한 작품에 대한 장르명이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 추리소설과 과학소설의 장르는 바로 ‘국가 이데올로기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혹은 ‘국가 이데올로기를 얼마나 충실히 재현하고 있는가’로 분화된다. “도대체 핵심이 없는 설명 같소. **우리의 적은 누**

35) 『우주 별레 오메가호』는 장편을 의미할 경우의 표기이고, 『우주 별레 오메가호』는 『학원』에 연재된 한 회분의 경우의 표기임을 밝혀 둔다. 다른 경우에도 이 표기방식을 따른다. 다만, 『금성탐험대』는 2013년 창비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된 것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장편과 인용문의 경우 모두 『금성탐험대』로 표기되어 있음을 밝혀 둔다.

군지 그것을 알아야 대책이 설 게 아뇨.”(252면) “웁소, 우리 적은 누구요? 누가 선량한 우리 시민을 괴롭히고 있소?”(『우주벌레 오메가호』5회, 252면)에서처럼 과학소설에서 싸워야 할 대상은 개인의 적이 아니라 ‘국가의 적’이다. 나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적’인 것이다. 국내에서 과학소설이 추리소설과 분리되어 나가는 지점은 바로 그 지점이다. 과학소설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개 사립탐정이 개입하거나 한 사람의 범인을 잡는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적을 잡기 위해 국방장관이 명령하고 군대가 개입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과학소설은 첩보(스파이)소설과 겹쳐지기도 한다. 국내 과학소설은 해외 추리소설보다 식민지시기 모험스파이 양식의 탐정소설 장르와 겹쳐지고 익숙할 수밖에 없다.

3-2. 과학적 이슈를 생생한 현실로 전달—공상이 아닌 ‘과학’소설

196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학원』의 국내 창작 과학소설은 마치 신문의 뉴스 기사를 보는 듯한 정도로 구체적인 과학지식과 당대의 과학 기사를 실어 나르고 있다. 『학원』에서 과학소설은 동시대 다른 잡지나 매체에서 고딕이나 괴기 혹은 기담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공상’(판타지)의 영역이 아니었다. 적어도 1960년대 『학원』의 과학소설은 ‘과학’소설로 수용되고 창작되었다. 『학원』에서 과학소설이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충격 이후인 1958년 무렵이다.³⁶⁾ 수용 시

36) 미국의 인공위성을 성공시킨 브라운박사, 브라운 박사의 화성 정복 계획, 1958.5; 그림없는 만화: 최소한 비용우주여행 소련의 스푸트니크 3호를 공짜로 잠깐 빌린다, 이기정, 1958.7. 1958년 무렵에 미국과 소련의 경쟁적 기사가 보도되고 의도적으로 ‘미국’의 성공사례를 앞세우는 이면에는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 사건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에서부터 강력한 필요에 의해 대두된 1960년대 『학원』의 ‘과학소설’은 실제 현실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거나 환상적이거나 공상적인 영역이 아니었다. 실제 현실을 재현하거나 혹은 적어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현실로서의 ‘과학’소설을 창작하고 있었다.

『학원』에서 과학소설은 한낙원이라는 장르소설가를 배출하면서 국내에 수용된다. 한낙원은 『금성탐험대』와 『우주벌레 오메가호』의 두 편의 장편 과학소설을 신고 있다. 한낙원의 과학소설은 당시 과학소설이 어떻게 수용되었으며, 과학이 국가교육이나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반영해 준다. 『금성탐험대』는 우주비행사 고진이 소련의 스파이였던 니콜라이 중령에게 납치되면서 미국의 금성 탐험 기밀이 누설되어 소련과 함께 경쟁을 벌이는 이야기이다. 『금성탐험대』(1962.12~1964.9)가 연재되던 1960년대 초는 미소간의 우주경쟁이 극도로 과열되던 시기였다. 그런데, 『금성탐험대』에서는 우주개발시대를 포착하기 위해, 구체적인 년도와 탐사선 명을 제시한다.

“V.P호 대원 전원 무사히 금성에 착륙, 착륙 날짜 1981년……”
(『금성탐험대』, 창비, 2013, 156면)

“그것은 지구에서 보냈던 마리너 7호에서 내려놓은 금성 탐색기 같구려.”
(『금성탐험대』, 창비, 2013, 306~307면)

한낙원이 『금성 탐험대』를 연재할 무렵에는 아직까지 금성 탐험에 성공하지 못하던 때였다. 화성에 가장 먼저 무인 우주선이 보내진 데 이어 미소의 관심은 금성으로 쏠리고 금성 탐험을 위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미국의 금성 탐사선은 마리너 2호로 1962년 8월~1963년 1월 사이에 활동하였으며, 1962년 12월 금성 표면을 탐사하였다. 한낙원의 『금성

탐험대』(1962.12~1964.9)는 미국이 금성 탐사선 마리너 호를 소련과 경쟁하며 띄우던 바로 그 시기에 창작되었던 작품이다. 마리너 7호는 그로부터 불과 몇 년 뒤인 1964년 미국이 화성을 탐사하기 위해 발사한 우주선이다. 이 작품이 연재되던 때(1962~1964)는 마리너 7호가 발사되기 이전이었으나 그리 먼 미래가 아니라 곧 발사될 가능성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그 이후에 마리너 7호가 금성이 아닌 화성을 탐사했다는 사실은 실현 가능한 미래를 다루는 과학소설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학원』에 실린 과학소설은 그 시대의 따끈따끈한 이슈를 바로 반영하여 창작하고 있었다. 금성을 놓고 미국의 마리너 호와 소련의 베레나 호가 벌이던 경쟁을 둘러싼 암투가 바로 『금성 탐험대』의 소재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당대 과학뉴스를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1967년 연재된 『우주 별레 오메가호』는 미국의 목성 탐사를 위한 보이저 계획이 작품의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다.³⁷⁾ 1972년 파이어니어 호가 먼저 목성에 보내지고 이어 1977년 보이저 호가 목성에 도달하기 전까지 목성의 달은 13개로 발견되었었다.

심지어 대낮에 달 가까이 뜬 금성을 보고 이것을 **외부 세계에서 날아온 비행물**이라고 믿는 일도 있지만 과학은 그것이 금성임을 입증했다. 이런 일로 미루어 이번 뜬소문도 한낱 낭설이라고 우리는 믿는 바이다./ 그러나 **S대학의 천문학** 반에서는 관상에서의 의견과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S대학 천문학 반은 이상 물체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오래 전부터 태양계의 별들을 유심히 관측해 오고 있었는데, 특히 그 초점은 목성 주변이 쏘였다. 그것은 **목성의 제 12번째의 달이 특히 최근에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목성에는 어떤 또 하나의 달이 발견될지도

37)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1968년 제작되었다. 이때 대사 중에 “목성에도 갈 콰비구만”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우주선 디스커버리호의 목표가 ‘목성 탐사’라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1968년 당시 목성을 탐사하려는 것이 우주 개발의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모른다는 견해 때문이었다. 그래서 A단은 목성과 목성 주변을 살피고 B단은 화성과 목성 사이를 관측하였다. (『우주 벌레 오메가호』2회, 220-221면)

1962년 금성 탐사선을 보내던 시기에 『금성탐험대』가 창작되었다면, 미국이 목성 탐사를 위한 계획을 세우던 1967년에는 목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우주 벌레 오메가호』가 창작되었다. 금성은 실제로 미확인 비행물체로 오인된 일이 종종 있었고, 목성은 보이저 호가 발사되기 전까지는 13개의 위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우주 벌레 오메가호』에서 목성에 또 다른 위성이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견해나 관심은 당시 미국을 비롯한 우주 개발의 관심이 ‘목성’을 향해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이처럼 1960년대 『학원』의 과학소설은 공상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 발견된 사실이나 과학뉴스를 바탕으로 당대의 이슈를 반영하고 있었다.

『우주 벌레 오메가호』에는 방사능 때문에 우주선이 탐사에 실패를 거듭하는 목성의 특성으로 기인하여 목성에 방사능을 이용한 의학, 치료 기술이 발달했을 것이란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우주 벌레 오메가호』에서는 『금성탐험대』에서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담아내면서도 막연히 방사능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성을 탈환해야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 목성의 방사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작품 배경 역시 미국의 하와이나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우리의 백운대로 옮겨 오면서 진보된 과학기술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우주개발이나 탐사보다는 ‘의학’과 ‘치료약’ 부분임이 강조된다. 『우주 벌레 오메가호』에서 설정된 ‘목성인의 지구탐험대로 인한 침입’은 ‘감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목성으로 탐사하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성인이 지구에 착륙하여 탐험한다는 발상은 국내에서는 그때까지 기술이 도달하지 않은 우주개발보다는 언제 발병할지도 모르는 ‘질병’으로

부터의 보호가 더 실질적인 관심사였음을 말해준다. 폐렴과 결핵으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던 1950년대에 미국의 결핵 항생제의 발명은 가히 놀라운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주인의 침입에 의한 감염 치료약을 개발하는 설정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이면에는 1960년대 국가의 '결핵퇴치산업'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1953년 대한결핵협회가 창설된 후 1965년에 이르러 최초로 전국 규모의 결핵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인구의 5.1%가 활동성 결핵으로 드러나자 결핵을 '망국의 병'으로 보고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퇴치노력을 벌였다.³⁸⁾ 우주 벌레에 물린 치료약이 결핵치료제인 '스트렙토 마이신'이라는 사실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당시 결핵퇴치산업이 얼마나 대대적이었으며 결핵치료약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재난 상황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국가는 주로 미국이었으며, 이때에도 미국은 신약 개발로 영국의 페니실린에 이어 스트렙토 마이신이라는 항생제의 개발로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이미지를 강화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신약들은 잡지의 광고 지면에서, 그리고 과학소설에서도 등장하여 '인류를 구원하고 있었다.

진만이와 다른 친구들이 목성의 지하도시에 납치되어 겪은 경험은 목성인의 놀라운 '의학'의 발전이었다. 결국 운전수와 진만이는 탈출을 시도하다 진만이만 살아 남았지만 그가 겪은 목성의 의학기술은 또렷이 기억에 남았다. 방사선을 활용한 사진촬영과 치료와 수술은 미래의학의 상상이었지만 지금은 실현되어 있다. 이처럼 당시에는 과학소설에서 '과학적인 요소'를 중시했다. 터무니없는 공상이 아니라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둔 미래의 희망을 담아 진보적 세계관으로서의 과학소설을 창작했다고 볼 수 있다.

38) 결핵모금 성금운동의 하나가 바로 '크리스마스 썸'이었다.

거인의 사령실 옆에 붙은 의무실이다. 역시 둥근 방이지만 일우네가 있던 방과 다른 점은 천정과 벽이 온통 최고기계로 가득차 있다는 것이다. 어떤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내 보내듯이 꾸불꾸불 나선형으로 도는 통모양으로 총대 같은 광선 발사관이 달려 있고, 어떤 것은 천정에 거는 둥근 통 같고 어떤 것은 여러 개의 구멍이 뚫린 속으로 광선이 나오게 되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런 이런 장치에서 여러 종류, 각양 각색의 방사선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약대신 전부 이런 **방사선으로 병을 치료하고 수술까지** 해내고 있었다.

(『우주벌레 오메가호』 5회, 257면)

도대체 두 종류의 괴인이 한 우주선에 탈 까닭이 없다. / 머리가 크고 키가 작은 쪽이 빨난 괴인을 지배하고 있다. 미혜의 경우만 하더라도 빨난 괴인이 **광선**을 비추려고 하자 손을 들어 그것을 막고, 자신이 다시 **검진**을 시작했다.

(『우주벌레 오메가호』 5회, 258면)

일우는 눈을 부릅뜨고 다시 지켜보지만 피는 분명히 나지 않았다. 의사는 조금 뒤 심장을 드러냈다. 드러낸 심장은 이내 동맥과 정맥선에 통로가 연결되고 곧 커다란 플라스틱 병 속에 옮겨졌다. 이런 작업이 끝나는 동안에도 피 한 방울 구경할 수 없었다. 의사는 일차 작업이 끝나자 이번엔 그들이 만든 심장을 인체의 동맥 정맥선과 연결하여 몸 안에 집어넣고 도려냈던 살터미를 덮어 버렸다. 그 뒤엔 주사 몇 대와 **광선치료**를 하는 일이 남았는데 그런 일은 보조원이 맡았다.

(『우주벌레 오메가호』, 7회, 348면)

1960년대 『학원』의 과학소설은 공상이 아니라 미·소 과학 경쟁의 연장선에서 생생한 현실을 담아내고 있었다. 『금성탐험대』가 연재되던 1962년은 금성이 아직 정복되기 이전이었고, 『우주 벌레 오메가호』가 연재되던 1967년은 아직까지 목성에 탐사선이 발사되기 이전이었다. 한 낙원의 과학소설은 당시 과열된 우주경쟁으로부터 화성, 수성, 금성에 미소가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그 다음으로 목성 탐사 계획이 실현될 것이라고 미래사회를 묘사하고 있다. 1960년대 『학원』에 실린 과학소설은

이처럼 생생한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우주를 탐사하고자 하는 인류의 꿈이 실현되면 또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미래의 희망으로 그려 놓고 있다. 『금성탐험대』와 『우주 벌레 오메가호』는 같은 1960년대이지만 1962년과 1967년이라는 시간적 간극 사이에 금성 탐험이 현실로 실현되면서 다음 희망인 목성이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장 밝은 별인 알파성에서 왔을 거라는 우주인은 이제 두려운 존재라기보다 정복 가능한 존재로 인식되어 그리스 문자의 가장 끝에 위치한 ‘오메가호’로 바뀌게 된다. ‘알파’에서 ‘오메가’로의 변모는 우주인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의 정도를 대입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원』의 과학소설에서 과학은 ‘진보’에 대한 믿음으로 반짝였고, 과학소설은 청소년에게 인류의 희망을 심어 주었으며 미래를 향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계몽하고 있었다.

한낙원의 첫 과학소설 『잃어버린 소년』(연합신문, 1959)에 등장하는 직업군들은 원박사, 공장장, 나기사, 전기공, 기계공 등 모두 이공계 분야이다. ‘박사’라는 칭호가 붙는 경우에도 모두 무언가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이공계쪽을 의미한다. 국가가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강조된 것은 늘 무기를 개발하고 로켓을 설계하는 이공계쪽임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과학소설이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읽힐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과학’이야말로 국가의 강력한 재편을 가능케 하는 힘이었기 때문이다. 장르소설은 각 시기마다 발달하는 유형이 있다. 1970년대 ‘역사소설’이 발달하게 되는 것도 그 시기가 ‘역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과학소설은 낯설고 생소한 해외 장르를 식민지시기에 창작되었던 탐정소설이라는 장르에 기대어 ‘과학탐정’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학원』과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대중잡지인 『명랑』 혹은 『아리랑』에

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소설이 주로 죽지 않는 ‘뭉’에 대한 열망을 담았다면, 『학원』의 어린이 청소년 과학소설은 교육 이데올로기를 담아서 국가가 욕망하는 청소년상을 담아내고자 했다. 『학원』의 청소년 과학소설을 ‘교육’ 혹은 ‘국가’와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과학소설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나와 타인, 나와 적을 구분하고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여 ‘경쟁구도’에 익숙하도록 유도했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 1등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과학은 ‘우등과 열등’, ‘우량과 불량’으로 끊임없이 구분하며 발전·진보의 이데올로기로 점철된 국가관을 뒷받침했다.

4. 결론

『학원』에 게재된 장르소설은 청소년에게 오락으로서의 읽을거리를 제공하면서도 끊임없이 명량, 계몽, 모험으로 그 시대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기획한다. 장르소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 대중성보다는 ‘계몽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명량소설에서의 악동들도 결국은 모범생이 되거나 혹은 우정이나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탐정소설에서의 모험도 악당을 물리치고 정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탐정소설에서의 악당을 누구로 설정할 것인지는 그 시대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어 중요하다. 과학소설에서도 우리와 대적하여 비밀설계도를 훔쳐간 적국을 누구로 설정하는지는 중요하다. 1960년대 과학소설에서의 적국은 미·소 냉전체제 하에서의 소련이었다. 이처럼 청소년 장르소설에서는 탐정소설의 악당이나 과학소설의 적도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의 적으로 묘사된다. 『학원』에서 끊임없이 제시되는 밝고

명랑하고 모험심이 강한 청소년상은 1960년대 선진국 미국을 쫓아 발전과 진보를 이데올로기로 삼았던 국가의 미래상이었다. 『학원』에 연재되었던 명랑, 탐정, 과학소설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르소설로 확산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청소년 장르가 갖고 있는 계몽성을 담보로 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장르소설이 오락성과 대중성을 중심으로 하여 일탈하고 싶은 욕망을 담아내고 있는 것과 배척되는 지점에 있었던 『학원』의 청소년 장르소설들은 후에 국내 장르소설의 확산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번역물 위주의 장르소설 시장에서 국내 창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독자에게도 장편 읽을거리를 제공하며 ‘장르 작가’를 탄생시키며, 이질적이고 혼란스러웠던 장르 개념들을 각각의 장르로 분화해 나가는 데 기여했다.

1950~1960년대 『학원』의 해외 추리소설 서지목록

- 사진탐정 아홉시의 사건, 코난 도일, 1957.10~11.(영국)
- 추리소설 푸른 십자가, 체스터튼, 천세욱 역, 1958.10.(프랑스)
- 명작추리소설 잃어버린 편지, 에드가 알란 포, 천세욱 역, 1958.12.(미국)
- 명작추리 마이너스보석사건, 1959.1.
- 과학모험, 과학탐정 해저도시 애틀랜티스, 코난 도일, 1959.8~1959.10.(영국)
- 탐정소설 압호 다이알을 돌려라, 오스틴 브리안, 1959.9.
- 탐정소설 검은 그림자, 알란 원작, 민동식 역, 1961.6~1961.7.(미국)
- 세계명작추리소설 쉐트 루이스 블루스, 코넬 윌리치, 구연홍, 1963.9.(미국)
- 특별게재추리소설 지하철의 뺨, 매글리 원작, 송영방 그림, 1964.8.(미국)
- 합본부록·추리소설 사형집행인, 코넬 윌리치, 1964.9.(미국)
- 해외 명작소설 발렌타인의 선물, 블링크, 1964.12.
- 추리소설 악마의 선물, 프레드릭 브라운, 한낙원 역, 송훈 그림, 1964.12.(미국)
- 추리소설 어느날 밤의 사건, J. S. 플레처, 1965.4.(미국)

장편추리 913호실, C. 올리치, 1967.7.(미국)
합본부록 그림자가 된 사나이, 코넬 윌리치, 1967.9.(미국)
추리소설 제로인간, 얼 스탠리 가드너, 1967.10.(미국)
명작 추리 마즈 그레이브가의 비밀, 코난 도일, 김용주 역, 1967.10.(영국)
괴기소설 도깨비병, 루이스 스티븐슨, 1967.12.(영국)
명탐정 마이크 션, 브레트 할리데이, 1968.1.(미국 TV 시리즈)
합본부록 유괴된 중학생, 코난 도일, 1968.2.(영국)
세계명작 달과 6펜스, 서머셋 모음, 1968.4.(영국)
합본부록 속삭이는 조각, 캐롤린 키인, 1968.7.(미국)
추리소설 살아있는 시체, L. 채터리스, 1969.6~1969.8.(미국)

1958~1960년대 『학원』의 과학소설³⁹⁾

영화 해저 2만 마일, 편집부, 1958.5.(프랑스)
연재탐정, 과학탐정, 공상과학, 과학소설 잃어버린 지하왕국, 브루스 카터, 장 수철, 1958.8~1959.6·7. *훈민사에서 1984년 전집의 한 권으로 간행
공상과학소설 원자마수의 내습, 조능식, 1959.3.
공상과학 티베트의 비밀도시, 권달순, 1959.8.
과학모험 해저도시 애틀란티스, 코난 도일, 1959.8.
공상과학 티베트의 비밀도시, 존 부레인, 1959.9.
과학모험 해저도시 애틀란티스, 코난 도일, 1959.8~1959.10.(영국)
공상과학 티베트의 비밀도시, 존 부레인, 1959.8~1959.10.
공상과학 곤충왕국, 조능식, 1959.9.
과학소설 우주선의 괴상한 사나이, 주동혁, 이주훈 화, 1961.4.
모험소설 지구는 어디로, 뒤아멜, 박명수 역, 1961.5.~1961.7.(프랑스)
모험소설 사해의 보물, 아란 애너, 안영배 화, 1962.3~1962.11.
과학소설 금성탐험대, 한낙원, 1962.12~1964.9.
과학소설 해저목장, 아이더. C. 클라아크, 1964.3.(영국)
모험소설 황금 나라의 비밀, 헨리 해거드, 송영방 그림, 1964.11.(영국)
과학모험 녹색의 우주인, 1965.5.

39) 국가 이름 없는 해외 번역물은 미국편, 창작 과학소설은 한국편이다. 창작 과학소설을 포함한 것은 과학소설의 장르 변모 양상을 고찰하기 위함이다. 3장의 1절에서 과학소설의 장르 변모 양상 고찰시 이 서지 목록 참고할 것.

- 장편 공상과학소설 원자력 잠수함 시부호, 어윈 알렌, 1965.7.(미국 SF 드라마)
공상과학소설 10만광년의 추적자, 강석호, 1966.2.
공상과학소설 미래전쟁, 1966.7.
SF 전작 장편 은하순찰대, 에드워드 스미스, 1966.10.
공상과학소설 바다밑 대전쟁, 1966.12.
과학소설 우주별레 오메가호, 한낙원, 1967.6~1969.2.
공상과학소설 제논 성의 우주인, 편집부 편, 1967.7.
우주서스펜스 스토오리 화성탐험 SOS, 편집부 편, 1967.7.
공상과학 타임머신, H. G. 웰즈, 1967.8.(영국)
공상과학 암흑성운의 내습, 후레트 호일, 1967.9.(영국)
공상과학소설 아이스맨, S.M 테네쇼우, 안동민 역, 1967.10.
과학 액션 청동의 거인, 1967.12.
과학소설 사라진 대륙, 최재진, 1968.4.
공상과학소설 달나라의 화성인, 이종철, 1968.9.
과학소설 지구에 기습 착륙하라, 권준섭, 1969.4.
과학소설 공포 괴물 세계에 나타난다, 정용훈, 1969.5.
SF 돌아오지 않는 성, 윤동일, 1969.7~1970.1
괴기 과학소설 불가사의한 이상인간, 1970.10.

참고문헌

- 김지영, 「1960-70년대 청소년 과학소설 장르 연구」, 『동남어문논집』 35집, 2013, 125~149면.
- 김지영, 「한국 과학소설의 장르소설적 특징에 대한 연구」, 『인문논총』 32집, 2013, 375~397면.
- 대중서사연구회 편,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2000.
- 모희준, 「한낙원의 과학소설에 나타나는 냉전체제 하 국가 간 갈등 양상」, 『우리어문연구』 50집, 2014, 223~248면.
- 박몽구, 「學生 저널 『학원』과 讀書 振興 運動에 관한 연구」, 『출판잡지연구』 20권 1호, 통권 20호, 2012, 59~79면.
- 박상준, 「21세기에 재조명되는 한국 과학소설의 선구자」, 『창작과비평』 제41권 3호, 2013, 584~587면.
- 송효정, 「실험실의 미친 과학자와 제국주의의 향수- 1960년대 한국 고딕SF 영화 연구」, 『대중서사연구』 통권 33호, 2014, 271~308면.
- 우미영, 「한국 현대 소설의 '과학'과 철학적·소설적 질문」, 『외국문학연구』 55호, 2014, 121~141면.
- 이 숙, 「문운성의 『완전사회』(1967) 연구」, 『국어문학』 52집, 2012, 225~253면.
- 장수경, 『『학원』과 학원세대』, 소명출판, 2013.
- 조계숙, 「국가이데올로기와 SF, 한국 청소년 과학소설」, 『대중서사연구』 통권 33호, 2014, 415~442면.
- 최애순, 「우주시대의 과학소설가 한낙원을 아시나요?」, 『창비어린이』 제11권 3호, 2013, 264~266면.
- 최애순, 「50년대 『아리랑』잡지의 '명량'과 '탐정' 코드」, 『현대소설연구』 47호, 2011, 351~390면.
- 최애순, 「우주시대의 과학소설- 1970년대 아동전집 SF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0집, 2013, 213~242면.

Abstract

Translation of the detective novels and the science novels and the process of genre-division of the magazine *Hackwon* in the 1960's

Choi, Ae-Soon (Keimyung University)

This paper studied the magazine *Hackwon* which had been anything to read in the 1960's. The magazine *Hackwon* furnished long genre novels, such as brightness novels, detective novels, science fictions through series-novels. And the magazine *Hackwon* published series-novels to the selective masterpiece collections. That strategy of the magazine *Hackwon* made the reading-wind to rise, and helped genre-writer's birth.

Hackwon published science fiction and detective fiction abroad differently from *Arirang* and *Myeung-rang*. Especially, the hard-boiled detective novels and pulp-magazine works of the same age in America flowed in. There were not a Leblanc's detective novel which was classic of the detective novels and translated the most in the colonial period. Together with the national strategy which stresses on science-education, science fiction was read by the mess of vivid science-news and scientific knowledge and scientific common sense in *Hackwon*.

The detective novels and science fictions divided by the conspiracy-degree country with an ideology in *Hacwan*. One is that the enemy is a personal, the other is that the enemy is a country. Therefore, science fictions are related with the ideology, the security, and the educational strategy of a nation.

Genre novels in *Hackwon* for adolescent were not diffused to the adult genre because of enlightenment through the ideology and the educational strategy of a nation. But *Hackwon* helped the division of genre such as detective novels and science fictions, with providing long novels to read in the 1960's.

(Key Words: genre, *Hackwon*, detective novels, hard-boiled novels, pulp-magazine, science fictions, the country, the 1960's)

320 대중서사연구 제21권 3호

논문투고일 : 2015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2월 1일

수정완료일 : 2015년 12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2월 15일